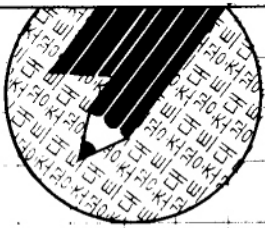


꿈트초대



강 유 일

1975년 여원신인문학상에 장편 소설 '백가' 당선
 1976년 경향신문 5백만원 고료에 장편소설 '배우수업' 당선
 저서 '예언자의 새' '빈자의 나무' '타악기의 계절' 등 21권 출간

마음의



석양마저 후송돼 버린 저녁이면 사람들에게선 유목민 냄새가 난다.

나이 사십이 되도록 단 한번도 발을 멈추고 황혼을 지켜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녁이 되어 철회색 아스팔트위에 자신의 그림자가 누워 혈떡이는 일몰이 되면 문득 삶의 심장을 향해 불어오는 알 수 없는 바람과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저녁이면 여자들은 대개 싱크대위로 떨어져 내리는 수돗물 소리도 잊은 채 건조된 창틀에서 잠목냄새가 풍겨오는 창가에 오래도록 앉아 있곤 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이미 삼십이 넘고 있었다. 어느 저녁 창가에서 우리는 저녁속의 그 집요한 적막이 우리에게 33세가 되었다고 충고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세월의 음성을 들은 후에도 벌써 2년이 지났다.

그제서야 우리는 아이들의 나이에 첨가되는 그 매년의 햇수가 우리에게서 젊음의 햇수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들은 이제 견잡을 수 없이 젊어질 것이고 우리는 무력하도록 빠르게 늙어갈 것이 틀림없었다.

35세가 되자 우리는 우리의 늙음을 멈추게 할 영원한 것이 필요했다. 십년동안 우리는 세월이라는 가속도에 떠밀려 무작정 표류하고 있을 뿐이었다.

35세가 되자 우리중 누군가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가 벌써 죽을 수 있는 나이에 당도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가 젊은 시절을 바쳐 그토록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편도

폭풍



이제 죽을 수 있는 나이에 당도해 있었다.

실사 죽음의 액운이 아니더라도 남편과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명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노화(老化)를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어느날 모두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그것은 한달에 한번씩 모이는 여고동창모임에서 전격적으로 통과되었다.

우리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보험회사 외판원은 다섯명이나 되는 우리의 얼굴을 쳐다보며 어리둥절해 했다. 우리는 말없이 보험증서를 읽었다. 보험증서의 약관은 검은 고딕으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재해로 인하여 2급에서 6급 사이의 장애, 혹은 일반사망, 재해사망할 경우 본회사는……’

일반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위해 붉은 인주 속에 손을 넣었을 때 우리는 살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가정(假定)인가를 알았다.

나중에 도착한 은교(恩橋)만이 생명보험가입을 거부했다.

“남편과 난 남다른 명줄을 타고났다는 거야. 종암동 변노파 점괘에 의하면 우리 내외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아흔살전엔 죽어도 죽을 수 없다는거야.”

은교의 남편은 염색공장 사장이었다. 은교의 부친은 지금도 염색계의 대부로 통하고 있었다. 빈 드림통 하나만으로 그녀의 부친이 그토록 대성할 수 있었던 것은 종암동 변노파 때문이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변노파는 이를테면 은교 부친의 단골 점장이었다. 염색업으로 돈을 번 은교의 부친이 외동딸인 은교를 동료 염색업자의 만아들과 결혼시킨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길고 넓은 하천을 끼고 늘어서 있는 사업장 부근에선 물방개와 송장수염벌레가 하루살이와 뒤엉켜 번식하고 있어도 그의 부친은 오후 내내 실증난 골프를 테니스로 채우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은교의 부친은 외동딸인 은교를 한 염색업자의 후계자와 결혼시켰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외동딸에게 자신의 수호신이었던 종암동의 변노파까지 상속시켰다는 사실이었다. 결국 은교의 부친은 은교에게 두 사람의 수호신, 남편과 변노파를 상속시켜 준 셈이었다.

은교는 그날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그들 내외의 수명이 누군가에 의해 90세로 보장받기라도 한 것처럼 의기양양해 했다. 그녀의 지론에 의하면 장수할 자신이 있는 사람에게 생명보험이란 참으로 재수없는 예방이라는 것이었다.

보험증서에 도장을 찍고 나자 우리는 그녀가 부러웠다. 우리에게도 자신있게 장수를 예언해줄 사람이 있다면 그리로 달려가고 싶었다. 그러나 우리에게엔 종암동 변노파 같은 예언자가 없었다.

생명보험에 가입한 이후에도 우리에게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우리는 황혼이 대지의 내장을 뒤덮는 저녁이 되면 화장대 서랍에 넣어둔 보험증서를 꺼내보면서 그것이 마치 우리를 불사(不死)에 이르게라도 하는 부적이라도 되듯이 넋을 잃고 바라다 보곤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곧 보험증서 같은 것은 잊었다.

우린 그럭저럭 행복했다. 남편들은 천천히 성공하고 있었다. 그들은 고등학교 생물 교사에서 뒤늦게 대학의 전임강사로 자리를 옮기게 되거나 재개발지역에 커다란 재교점 허가를 얻어내거나 아니면 과장이 된 세관원, 임업시험장의 연구관, 우유 가공회사의 총무과장 등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은교의 남편 학수만큼
당당하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다.

학수가 40세 생일을 맞이하던 날 그의 부친은
그에게 엄청난 크기의 염색공장을 물려주었다.
학수는 염색공장의 젊은 후계자가 될만한
인물이었다. 그는 난폭하리만치 치밀했고 야망이
많은 인물이었다.

학수가 염색회사의 젊은 사장이 되던 날 은교는
우리를 그녀의 새 집으로 초대했다. 그 집은 학수의
부친이 새 후계자를 위해 지어둔 집이었다.

한적한 풍치지구에 들어앉은 은교의 새 집은 작은
보석 오피처럼 아름다웠다. 우리는 그때까지 단
한번도 그날 학수와 은교가 베푼 것처럼 아름다운
가든파티를 본 적이 없었다.

수많은 하객 가운데 서있는 은교를 보았을 때
우리는 그녀의 가든파티보다 그녀의 행복이
90세까지 보장돼 있다는데 가만히 신음했다.

그녀의 행복은 종암동 변노파에 의해 90세까지
보장돼 있었다. 사실상 그것은 생명에 관한 한
지상이 보장해줄 수 있는 최고의 장수, 완전한
축복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은교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오랫동안 그날의 그 가든파티에 최면당해 있었다.

은교가 베푼 것과 똑같은 가든파티를 베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죽어도 여한이 없었다. 그날부터
우리는 마치 일생에 단 한번 오직 가든파티를 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비장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남편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역정을
내며 부인하지만 그들도 이따금 벽을 향해 돌아눕는
시간이면 그날 은교의 남편 학수가 베푼었던
충격적인 가든파티를 천천히 기억해 내곤 하는 것이
틀림없었다.

우리중 누군가 종암동의 변노파를 만나러 간 것은
그로부터 한달 후였다. 그녀는 은교부부에게
당당하게도 90세까지의 장수를 허락했던 그
노파에게 자신의 행복도 보장받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엄청난 복채를 지불하고 그녀가 얻어낸
것은 그들 부부를 향해 삼재(三災)의 액운이
시작되고 있다는 변노파의 저주에 찬 점괘였다.

결국 그녀는 그날밤 세마리의 매가 그려져있는
석장의 부적을 들고 돌아올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녀에게 내려진 삼재에 대한 선고와 석장의 부적은

우리에게 무서운 충격을 주었다.

“은교는 우리가 아무리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상대야.
그들 부부에게 내려진 90세의 장수를 생각해봐.
그리고 그 가든파티를.”

우리는 입을 다물었다. 물론 우리는 은교와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다만 은교만큼
행복해지고 싶은 우리의 끝없는 욕망과 싸우고 있을
뿐이었다.

우리에게 영원히 가든파티같은 것은 허락하지
않을 생각인 소시민의 적당한 빈곤, 아아
빈곤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차라리
빈곤이 아니라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는
진저리나도록 적당한 소유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들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가을이 왔다. 늘 그러했듯이 은교에겐 두 배나
아름다운 가을이었다.

그 해 가을 은교는 싱가포르에서 우리에게
그림엽서를 띄웠다. 사자의 분수가 찍혀있는 그녀의
엽서를 보았을 때 우리는 은교가 행복에 관한 한
바로 그 사자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녀의 행복은
90세까지 이어질 것이다.

산업시찰 여행을 끝내고 그녀가 귀국하던 날
우리는 공항에 갔다. 아름다운 남방모자를 쓴 은교가
입국대에서 우리를 향해 손을 번쩍 치켜드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그 가을의 마지막을 우리는 죽어도 잊을 수 없다.
 그 가을이 시작되었을때 은교는 싱가포르여행을 떠났다. 그러나 가을이 다가오는 겨울에 의해 문을 닫을 무렵 그녀에게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

오후였는데 우리는 놀랍게도 은교의 남동생으로부터 걸려온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맨처음 수화기 속의 그 27세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무슨 일이냐고 쾌활하게 물었다. 은교에게서 온 전화라면 우리는 쾌활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그녀의 소식은 언제나 즐거운 것들로 충만해 있었다.

“사고예요.”

27세 청년은 말했다.

“배부가 다쳤어요. 죽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병원을 향해 달렸다. 얼어놓은 창문으로 흑흑 흐느낄 정도로 미칠듯한 바람이 쏟아져 들어왔다.

병원 응급실에 은교는 없었다. 간호원실로 다가가 학수의 소식을 물었을때 우리는 분명히 들을 수 있었다. 간호원은 우리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죽었습니다. 화상으로 인한 쇼크사였죠.”

간호원은 다시 말했다.

“화상에 화학물중독이 겹쳤죠.”

영안실에서 우리는 은교를 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녀에게 갈수 없었다. 며칠전만 해도 우리는 공항

로비에서 그녀와 양식으로 깊은 포옹을 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녀와 포옹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중에 안일이지만 은교의 남편 학수는 공장 확장공사를 위해 낡은 공장을 시찰하던 중 공장의 가설난간이 부러지면서 풀는 염색솥에 빠져 버렸던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때 우리는 벽에 얼굴을 붙였고 그리고 눈을 감았다. 아무리해도 그 치밀한 남자의 실족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아니 우리가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염색솥에 실족해버린 그 남자의 실수보다 그 남자가 펄펄 끓는 염색솥에 빠지도록 한 자락의 징조도 발견해내지 못했던 그 종암동 변노파의 믿을 수 없는 무능이었다.

그렇게해서 한 점장이에 의해 90세까지의 장수들 보장받았던 한 남자는 겨우 40세에 염색솥에 빠져 요절해 버렸다. 우리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겨울이 되자 우리는 은교가 자살을 할까봐 겁이 났다. 겨울이 깊도록 우리는 도무지 그녀를 만날 수 없었다. 어느날 은교에게 전화를 걸자 그녀의 가정부가 말했다.

“아주머니는 교회에 나가시고 없는데요.”

가정부에게 물어 우리는 그녀가 나갔다는 교회에 갔다. 수은등이 켜진 교회문 앞에서 우리는 예배를 끝내고 나오는 검은 상복차림의 은교를 보았다.

은교를 보자 우리는 달리 아무것도 할수 없었으므로 흐느꼈다. 은교가 다가와 우리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그녀가 너무도 의연한데 놀랐다. 우리는 그녀가 이미 예전의 은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적막한 밤공기위로 날아 올라가 가만히 비추고 있는 수은등 아래서 은교가 말했다.

“먼저 우리 마음의 모든 부적을 태우는 것이 중요해. 90세의 장수나 생명보험의 야집같은것. 내일부터 내집 대문을 열어 놓겠어. 남편은 절명하던 순간에도 이렇게 소리쳤지. 난 죽어선 안돼. 지금일리가 없어. 난 아흔살까지 살아야만해. 아흔살까지.”

귀로의 어둠속에서 우리는 말없이 마음의 모든 부적들을 버렸다. 우리의 영혼은 놀랍도록 가난해져 있었다.

집에 돌아와 책을 펼치자 붉은 책갈피엔 붉은 줄 아래서 열네개의 글자는 이렇게 속삭이고 있었다.

“가난한 영혼이 곧 최고의 영혼이다.”

